21세기는 왕도의 일중ㆍ미중 제휴 시대로 (1)

반세기에 걸쳐 일본과 중국 간의 무역에 관계해 온 기무라 이치조(木村一三) 씨가 2005년 11월에,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끼어 있는 일본의 입장과 역사적인 역할에 대하여 21세기는 패도(覇道 : 인의를 무시하고 권모술수로써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왕도(王道 : 인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의 세기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기무라 이치조 씨는 1917년생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 동란도 끝난 1954년에, 일제 시대에는 만주중공업 총재였고, 대전 후에는 통산장관 등을 거친 다카사키 다쓰노스케씨의 소개로 일본 국제무역추진협회 관서(關西) 기구를 설립하는 데 참가하였고, 일중경제무역 센터 회장을 거쳐, 현재 명예회장으로 있다.

2차 대전 후 일본과 중국 간의 교류에서는 최고참이며, 중국의 주은래(周恩來) 총리 및 료승지(廖承志) 씨와 깊은 친교가 있었으며, 일본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에 도쿄ㆍ관서 재계를 대표하는 민간인으로 활약하였다. 등소평(鄧小平), 호요방(胡耀邦), 조자양(趙紫陽) 씨를 비롯해 강택민(江澤民), 주용기(朱鎔基) 호금도(胡錦濤) 씨와 같은 중국의 여러 지도자를 비롯한 유력자와 친밀한 친우 관계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10여년간 국제석유의 사장을 겸직하였다. 1998년에는 모든 공식적인 자격을 떠나 솔직한 본심으로 일본과 중국 간의 정치ㆍ외교를 논의하는 루트를 만들 것을 호금도 씨에게 직접 제의한 결과, 1999년에 일ㆍ중 신세기 포럼을 창립하여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기무라 씨는 워낙에 풍부하고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등을 강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 요약해 소개해본다.

내가 일본과 중국 간의 무역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부터이므로 이미 반세기 즉 50년이 넘었다.

나는 그 당시 다카사키 씨로부터 구체적인 일은 스가노(菅野) 씨와 상의하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카사키 씨는 주로 미국과 멕시코에 10여년 정도 주재하다가 돌아온 분으로서 일본의 정계나 재계 사람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견식이 높은 국제인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포용력이 있는 분이다.

중국의 주은래는 '다카사키 씨는 훌륭한 인물로서, 그 동안 만났던 일본 사람 중에서는 처음 보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쓰무라 겐조 씨는 다카사키 씨가 작고한 후에 중국에 가서 '다카사키 씨의 후배들이 많이 생겨 뒤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였더니, 주은래는 '다카사키 씨만한 친구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 만큼 주은래 씨도 다카사키 씨에 반한 사람이었다.

그는 만주중공업 총재였으므로, 2차 대전이 끝난 후의 혼란 시절에 일본인 거류민단(居留民團 : 임시로 살고 있는 외국인의 집단) 단장이 되어 중공군과 국민당군(國民党軍) 그리고 소련군 세 종류의 군 대표와 처음부터 끝까지 교섭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다카사키 씨는 '국민당은 미래가 전혀 없다. 그렇게 엉터리면 말

이 안된다, 국민의 지지를 잃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적군(赤軍)의 소련군에 대하여도 형무소에서 바로 나온 사람도 있어 잡당패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팔로군(八路軍)에 대하여는 '군기가 엄하여 볏짚 한 올도 훔치지 않고 있다. 큰 비가 쏟아질 때 국민당군이라면 잠자고 있는 촌민을 두들겨 깨서라도 내쫓아 자기들이 집에서 잠자겠지만, 공산군은 비에 흠뻑 젖어도 집 안에는 안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중국 공산당군이 이긴다'고 생각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다카사키 씨는 '중국 공산당군은 소련의 공산당군과는 달라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하였다. 그는 '반돈' 회의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여 회의를 성공시키는 데 공헌하여, 그 곳에서 주은래와 평생토록 굳게 맹약한 친구가 된 것은 다들 아는 바와 같다.

◎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만들어

2차 대전이 끝난 후 중국에서 돌아온 다카사키 씨는 그 당시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에 직접 나설 수 없으므로 네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라고 하여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원래 장사꾼이 아니라 장사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모택동(毛澤東)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았으므로 마침내 중국과의 무역을 맡기로 하였다. 그 당시 다카사키 씨는 고노 이치로(河野一郎) 씨를 아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고노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도 어떤 은행으로부터 8억엔이란 적지 않은 돈을 대출하여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정치캄파(자금 모집 운동)하고 있었으며, 고노 내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에게는 돈이 없으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대로 정치가에게 몽땅 캄파하였다는 것은 유산을 정리하면서 알려졌다. 그만큼 다카사키

씨라는 분은 청렴하며 활달한 사람이었다.

그 후 나는 중국 무역을 시작하여 50년이 넘었다. 중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이었으므로, 대단히 긴 세월이었으면서도 큰 일도 못하였으나, 5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참고될 만한 것을 말씀 드리겠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즉 외교 관계도 그 출발점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므로 여러분은 거대한 중국에서 무엇이든 의논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 두시오.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커져서 점차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만들어진다.

중국 문제에서 잘못된 평론가가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점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서 일본이 양보하면 중국은 틀림없이 계속 다른 문제를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본을 때리지 않으면 일당독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들 말하고 있다. 막말하면 그런 결론이 그들의 주장이지요.

그것은 당치않은 말로 중국에서는 이미 일당독재를 끝내어 졸업하려고 하며 준비 중이다. 2004년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혁명의 당이 '세 개의 대표'의 당으로 된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중국 문제에서 마치 중국통(中國通) 같은 사람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중국 친구가 한 명도 없거나 중국에 별로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을 자기 혼자의 상상과 짐작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이 파산할 시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